

육계자조금



자조금소식 2010년도 육계자조금사업 성과

AI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철저 당부

육계뉴스 올해부터 닭고기 전면 포장 유통 실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2011 **1** volume 15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이준동 위원장

육계자조금 조기 정착과 농가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토끼해를 맞아 전국의 모든 양계농가와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AI의 발생으로 우리 양계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탄탄된 힘과 노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 한해는 한·EU FTA 및 한·미 FTA가 타결되고 육계제철화 사업에 대한 갈등 심화, 닭고기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해로 기억됩니다. 반면 ‘육계의무자조금’ 기출률 향상,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등 육계 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육계의무자조금이 시작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육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부 도계장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거출 홍보에 집중해 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 할 것이며, 또한 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육계자조금은 신묘년 새해에도 농가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육계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추진될 사업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우선적으로 육계자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출 홍보에 집중하여 농가들의 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쟁력 강화와 자진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비중을 높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육계농가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산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국산 닭고기 인증제’를 더욱 확대해 소비자들이 국산 닭고기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산 닭고기의 수요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1년은 육계자조금 활성화와 육계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사업이 잘되시길 바라며,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육계농가의 새 희망! 육계자조금에 적극 동참합시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가고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육계농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갈등과 국외적으로는 한·미 FTA 및 한·EU FTA 타결 등 우리 육계산업에 있어 이렇게 많은 악재가 한순간에 찾아온 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육계농가들이 농장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해를 맞았지만 2010년 고트버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희망의 끈보다도 두려움의 현실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지켜만 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계농가 모두가 단합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한 가운데 육계자조금사업이 우리 육계농가들의 희망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작년 육계자조금은 미흡하나마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출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올해 육계자조금사업은 작년과 같이 육계농가들의 경쟁력 제고,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조금 거출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더불어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한 국산 닭고기 인증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비홍보사업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계농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육계농가 여러분! 육계자조금사업은 4천 육계농가들의 희망입니다. 어둡고 암담한 국내 육계산업의 앞길을 밝혀줄 햇불입니다. 우리 모든 육계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이 있을 때 만이 우리가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계농가는 세계최고 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닭고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닭고기 소비촉진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육계농가들은 어려울수록 끈끈하게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육계 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자조금 사업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육계산업의 새 희망! 육계자조금에 적극 동참합시다. 🍀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이홍재 의장



국산 닭고기 인증제 사업 ‘순항’ 중 대한양계협회, 1·2차에 걸쳐 11개 업체 인증

국산 닭고기만을 취급하는 음식점,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산 닭고기 인증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국산 닭고기 인증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현지실사를 마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상의 문제로 승인이 보류된 (주)진푸드를 제외한 5개 업체(표 참조)를 신규 국산 닭고기 인증업체로 선정하였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1차로 국산 닭고기 인증업체 6곳을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5개 업체가 새롭게 추가되어 국산 닭고기 인증업체는 총 11개로 늘어났다.

현지실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는 국산 닭고기 취급 인증서를 발급받고 향후 1년 동안 판매점, 배달용 포장박스, 포장지 등에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산 닭고기 인증제 사업은 수입산 닭고기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닭고기를 정확히 알려 새로운 소비활성화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육계산업 발전에 돌파구를 제시하고 공정한 인증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는 한편,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열린 회의에서는 인증업체 선정 외에도 국산 닭고기 인증제에 관한 인증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강광파 상임이사는 “국산 닭고기 인증제를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고 밝히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증제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증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절차를 더욱 구체화해 인증절차와 같이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증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광희 연구사는 “인증 받은 업체는 1년 동안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를 부착한 포장지나 박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한양계협회는 업체들의 이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국산 닭고기 인증제의 도입 효과와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년에 국산 닭고기 인증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산 닭고기 인증 업체 현황(총 11개 업체)

	업체명	브랜드	설립일	비고
1차	(주)한국 153농산	처갓집 양념통닭	2002년 10월	프랜차이즈
	(주)에이에프씨코리아	아주커 치킨	1998년 7월	프랜차이즈
	(주)맛있는 생각	굽네치킨	2005년 3월	프랜차이즈
	(주)진진푸드시스템	구어좋은 닭	2000년 12월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마리 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	2006년 7월	프랜차이즈
	(주)들판	들판	2005년 7월	식육포장처리업체
2차	(주)마세다린	사바사바치킨	2003년 8월	프랜차이즈
	(주)케이지푸드	두리아	2007년 1월	프랜차이즈
	유진물산	꾸꾸루꾸	1988년 10월	프랜차이즈
	(주)에땅	오븐에 빠진 닭	2001년 1월	프랜차이즈
	(주)이가에프디에스	에코윌	2003년 5월	학교급식업체

1차 국산 닭고기 인증 업체



2차 국산 닭고기 인증 업체



농가 교육 확대 및 소비자 국산닭고기인증 홍보 펼쳐

2010년도 육계자조금사업 성과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육계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추진, 국내산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대국민 소비홍보사업 등 2010년 실시되었던 주요 육계자조금사업 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

전문 육계CEO과정교육, AI 대비 전국양계인대회 및 육계인대회

전문육계 CEO 과정교육은 2010년 8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충남 홍성 축산회관에서 육계농가 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사양기술심화과정, 양계정책동향, 인증제도 품질관리, 세무회계교육, 계약협상전략, 비즈니스 교육 등을 실시, 농장의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모색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및 마케팅 단계까지의 총체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 지식인으로 양성하였다. 첫 번째 교육에 대한 육계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아 2차 교육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경북 칠곡의 영진산업인력개발원에서 육가농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AI대비 전국양계인대회 및 육계인대회는 4월 16, 17일 양일간 남원 지리산유스호스텔에서 육계인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인의 권익보호와 단합을 통해 위상을 제고하고 계열화 사업의 본질적인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주제발표로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안 모색, 육계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은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8개 지역 1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1월 29일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발생함에 따라 29일 이후 교육은 취소됐다. 일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11월 17, 18, 19일에 각각 전북 남원과 김제, 정읍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23일 광주, 24일 함평 등 전남지역, 25일 포천, 26일 안성 등 경기지역, 29일 고성 등 경남지역에서 교육이 실시되어 총 900여 농가들이 참여했다.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은 육계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FTA 등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양계 및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신종 질병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HACCP인증을 통해 농가 생산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계농가 HACCP 교육 참가비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 두 차례 있었다. 6월 25일~7월 28일 진행된 1차 HACCP 농업인과정에서 육계농가 41명이 참여하였으며 8월 10일~11월 24일 2차 HACCP 농업인과정에서 95명의 농가들이 교육에 참여, 교육비가 지원되었다.

한편 정보제공사업으로 육계자조금사업을 소개하는 월간지, 자조금소식지를 제작하여 5천 수 이상 사육 농가와 소비자, 도계장, 관련기관에 배포되었다. 육계자조금소식지를 통해 자조금과 육계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육계자조금사업에 생산자 공감대와 참여율을 높여 자조금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해 왔다.

2010년 7월 29일~8월 1일 4일간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에서 '양계' 홍보관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닭고기의 영양적 가치와 올바른 상식을 전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 기간동안 부수 행사에서는 우수한 영양가와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홍보하는 영상물(광고, CM송 등)을 전시하고 육계자조금 소식지와 양계 홍보책자를 배포하였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제공 사업이 이루어졌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hicken.or.kr)를 개설하여 육계농가들에게 수시로 자조금 사업 추진현황을 전달하였으며 자조금 사업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육계농가들이 자조금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활동 및 조직화 교육도 이루어졌다. 육계자조금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조금사업의 중요성,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농가들에게 제도와고수납기관, 관련기관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을 지원했다.

조사연구사업 :

국내계열화사업, 질병, 병아리이력제 및 품질보증제에 관한 연구 진행

조사연구사업은 국내계열화사업과 질병 발생동향 및 대응방안, 병아리이력제 및 품질보증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계열화사업 연구는 건국대 자연과학대학 식품자원 환경경제학과 김정주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 지난해 7월 22일부터 5개월여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질병 발생동향과 대응방안연구, 병아리이력제 및 품질보증제에 관한 연구는 경북대학교 산하협력단(김기석 수의과 학대 교수)이 지난해 10월부터 수행중이며 올해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홍보사업 :

TV·라디오 광고, 닭고기 먹는 날 행사, 국내산 닭고기 인증사업 등

소비홍보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 광고는 지난해 8월 '국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광고'로 제작돼 IPTV(국TV)를 통해 방영되었다. TV 광고는 국산 닭고기 인증제를 통해 국산 닭고기 안정성 홍보와 소비자 신뢰도 구축 및 소비촉진 유도, 국산 닭고기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입산과의 차별화로, 소비자로부터 국산 닭고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0년 7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핵심 타겟을 대상으로 인지도 제고 및 전환율 극대화'란 제안서를 제시한 나스미디어가 대행사로 선정되었으며, 가수 진미령, 개그우먼 송은이가 TV광고의 모델로 출연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IPTV광고는 QOOK(국)TV를 통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다.

직접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로 '닭고기 먹는날' 행사가 각 지역별로 실시되었다. 전국 지역행사에 닭고기의 안전성을 직접 홍보하고 지역민에게 육계농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닭고기 먹는날' 행사는 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되새기고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교감으로 닭고기 소비홍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홍보사업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는 바로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다. 이 사업은 국산 닭고기 사용업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수입산 닭고기 사용업체와 차별화하고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산 닭고기 사용업체를 증가시키고, 또한 육계농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양계 협회주관으로 8월부터 3개월간 1·5·7호선을 통해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철저 당부

검역원, 가금 분뇨 농장 밖 이동 금지 요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계 농장에 대해 철저한 방역 및 농장 밖 분뇨 이동 금지 등을 요청했다.

검역원은 닭이나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 또는 가금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가금 분뇨를 농장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닭·오리 운반차량은 시·군에 신고하여 각각 닭·오리 출하 전용 차량 지정을 받고 차량에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또는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토록 했으며, 농가·도축장을 출입하거나 이동통제 초소를 통과하는 경우 관계자가 이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가든형 음식점 등에 토종닭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필히 시·군의 지정을 받고, 매주 소독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철새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에 철새 도래지에 대해 철저한 소독 등 관리를 당부했다. 🍌

고병원성 AI 신고·검사 현황 및 조치사항(12월31일 현재)

순번	신고일시	장 소	위치	축종	규모(두수)	증상
1	12.29, 15: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	오리 (종오리)	10,700	- 산란율 감소(60%), 사료섭취 감소(20%), 노변
2	12.29, 17:30	전북 익산시 망성면	-	닭 (종계)	17,000	- 활력저하, 벼슬청색증 (폐사 500수, 12.29)
3	12.31, 11:50	전북 익산시 낭산면	최초 확인농장에서 2.7km(위험지역내) 위치	닭 (토종닭)	50,000	- 사료섭취 감소, 활력저하, 선위출혈 등 (폐사 500수/12.29, 600수/12.31)

닭 · 병아리 · 계란 운반차량 시군 등록해야

소독방역필증 발급받아 운행... 미발급차량 시군진입 불가

고병원성 AI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가금관련 수송차량 일제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가금관련 수송차량에 대해 시군에 등록하는 한편 소독방역필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익산의 육용종계장과 충남 천안의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닭어리장차량, 종란 및 병아리운송차량, 계란유통차량 등 가금관련 수송차량을 반드시 해당 시군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가금과 가금산물을 이동할 경우 차량소독필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만 시·도간 이동이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미등록차량과 소독필증 미발급차량은 시·군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에따라 각 지회 및 지부의 회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금관련 차량을 시·군청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차량소독을 반드시 하여 소독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해외 여행후 5일간 농가 및 가축시장 방문 금지



“해외여행 후 5일 동안은 축산농가나 가축시장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재발함에 따라 축산농가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상재지역인 중국, 동남아 등을 여행할 경우에는 농장 및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휴대·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국, 동남아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5일간 축산농장에 출입하지 말고 해외여행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는 한편,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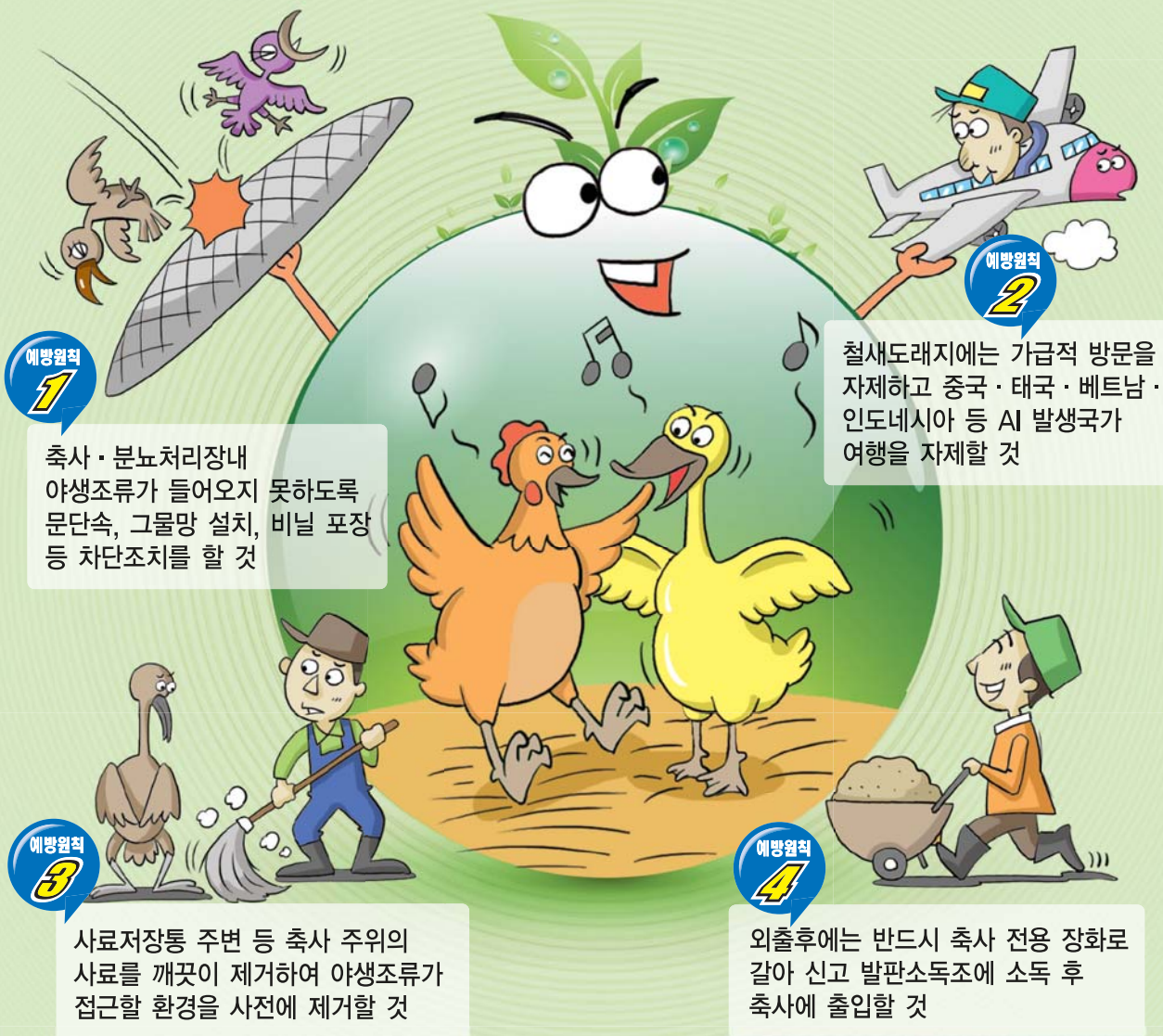
닭 사료 운반차량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는 닭과 오리 사료를 구분하여 공급하고, 오리사료 운반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사료공장·대리점·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시·도에서 발급하는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농가는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하고,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을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독을 실시하고, 자가 트랙터·경운기 등 통해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를 직접 운반해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4대 원칙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철새와 밀수되는 애완조류에 의한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심축 신고전화



1588-4060/9060



농림수산식품부
www.mifaff.go.kr



국립수위과학검역원
www.nvrqs.go.kr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www.lhca.or.kr

AI 감염 증상시 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AI 감염 닭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AI는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닭·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 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 감염된 닭·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②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③ 감염된 닭·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 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닭고기·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나요?

AI가 발생했더라도 감염된 닭은 바로 죽기 때문에 감염된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AI가 발생한 농장은 물론 발생 농장 주변 3km 이내(위험지역)의 모든 닭과 계란의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도축을 할 수 없어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섭씨 70℃에서 30분, 섭씨 75℃에서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 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상적인 식생활 습관상

닭고기·오리고기를 날로 먹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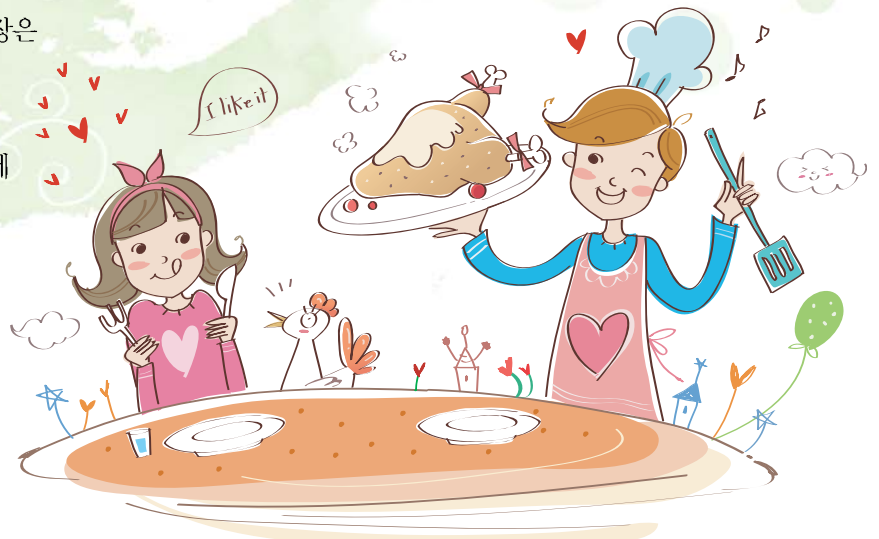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T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가금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레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어떤 소스와도 잘 어울리는 닭고기 요리

치킨스테이크와 데리야끼소스 & 닭튀김 마늘소스

소스와 어우러진 닭고기 요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양념 치킨이다. 튀김옷을 입혀 갓 튀겨낸 닭고기에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을 입힌 양념치킨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다.

하지만 소스와 어울리는 닭고기요리가 양념치킨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닭고기는 간장양념, 데리야끼소스, 고추장소스 등 어떤 소스와도 잘 어울려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킨다. 다양한 소스와 어우러진 닭고기 요리 속으로 빠져보자. 🍗



치킨스테이크와 데리야끼소스

재료

닭다리 8개(800g), 우유 4큰술, 소금, 후추, **데리야끼소스**(간장 1컵, 마른고추 1개, 생강 5g, 마늘 2쪽, 통깨피 10g, 청주 1컵, 대파 5cm 길이 1토막, 양파 1/4개, 설탕 1/2컵, 물엿 1/2컵, 녹말(참쌀가루) 약간, 닭육수 1컵)

만들기

- 1 닭다리는 뼈를 발라 넓게 펴고(뼈를 바르지 않아도 됨) 칼끝으로 찍어 오그라들지 않게 한 다음 우유에 30분간 재운다.
- 2 ①의 닭다리를 건져 소금, 후추를 뿌려 밀간을 한다.
- 3 냄비에 데리야끼소스 재료를 담고 불에 올려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여 은근히 1/3양으로 줄어들도록 끓여 체에 밭쳐 다시 냄비에 담는다. 녹말을 물에 풀어 조금씩 부어 약간 걸쭉한 소스가 되도록 한다.
- 4 ②의 닭을 팬에 지져내어 접시에 소스를 뿌리고 위에 담은 후 다시 소스를 뿌려낸다.

닭튀김 마늘소스

재료

닭다리 5개, 닭날개 5개, 튀김가루 2/3컵, 카레가루 1큰술, 생강즙 1/2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후추, 마늘, **마늘소스**(마늘 4쪽, 소금 약간, 물 1큰술, 레몬즙 1큰술)

만들기

- 1 닭다리와 날개는 깨끗이 씻어 칼집을 넣어 소금, 후추, 생강즙을 뿌려 2시간 정도 재워 둔다.
- 2 튀김가루와 카레가루를 잘 섞은 후 물 1/2컵을 부어 덩어리가 없도록 반죽을 한다.
- 3 ①의 닭에 밀가루를 묻히고 ②의 튀김옷을 입힌 다음 170℃ 되는 식용유에 넣어 두번 튀겨 건진다.
- 4 마늘 4쪽, 소금 약간, 물 1큰술, 레몬즙 1큰술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 소스를 만든다.
- 5 튀긴 닭고기를 접시에 담고 마늘소스를 곁들여 내어 찍어 먹는다.



올해부터 닭고기 전면 포장 유통 실시

새해 달라지는 육계산업 관련 정책 안내

2011년 새해 달라지는 육계 산업 관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큰 이슈는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닭고기 전면 포장유통제 실시다. 이같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비롯, 농축산업 관련 제도 가운데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포장된 상태로 유통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축산물의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를 2011년 1월부터는 모든 도축, 유통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 판매 또한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도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기로 했다. 아울러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폐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정기 검사는 다소 완화된다. 정부는 매년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정기 심사하던 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정기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운용실태를 조사·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심사 수수료 등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HACCP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자조금 수납 업무 관련 과태료 정부는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각 시·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새롭게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는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되며 그밖에 의무거출금이 폐지되었는데도 수납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지 않을 경우도 시·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비 융자 적기지원 농림수산물품부는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1학년도 농어촌출신 대학생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신입생 등록기간보다 앞당겨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융자기간이 같아 신입생의 경우, 자비로 먼저 등록한 후 학자금을 융자받아 갚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신입생들에게 적기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신입생에게는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재학생에게는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학기부터는 신청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제출하였던 친권자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종전 졸업 후 1년이었던 융자금 거치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1년 연장하여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융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개선하였다. 🍀

축사 현대화사업지원 대상중 **육용 종계는 2만수로 완화**

2011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가 발표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11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가운데 육계 관련 사업 지원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재(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닭의 경우 평사는 2만 1천원/㎡, 케이지는 3만4천원/㎡ 사업비에 의거 산출 적용
- 사업비 지원한도액
 - 개별시설(개별농가 2억원/개소, 법인체 등 10억원/개소), 공동퇴비장 5천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액비화 30억원/개소 :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70%이상 처리, **퇴비화 45억원/개소 :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퇴비화 70%이상 처리, 에너지화 70억원/개소**), 액비저장조설치 1천700만원/개소(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억원/개소(최초지원시), 액비살포비 20만원/ha, 액비성분분석기 2천400만원/개소, 액비부숙도판정기 3천만원/개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1천만원 이내 (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천만원 이내), 정화방류수탈색장치 3천만원 이내,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8천만원,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3천만원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 등록자
-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을 수송하는 냉장특장차량 구입비



- 지원자금 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지원형태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본담 50%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대상자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
- 양계(닭)은 3만수(육용 종계 2만수) 이상
- 개별 종축장 :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중돈장, 종계장), 우수AI센터로 인증받은 종축장
- *종축장 종합 평가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통보

- 지원대상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 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신축축사 환수 조치

- 양계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계란 세척기 등), 계란 냉장보관창고, 종란 보관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형태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2년차 사업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지원한도액 : 사육시설 면적당 육계 30만6천원/㎡, 폐사축처리시설 2천만원, 개소당 : 7억원 총사업비 8억7천500만원
- 2010년도 예산안 : 양계 51개소(226억900만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가점 부여 납입율 100% 일 때 70점, 납입율이 10%미만일 때 0점

축산종합지도(HACCP)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축산농가와 축산물작업장 중 HACCP 적용희망 농업인·영업자

- 지원자격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만수 이상인 농가
- 지원대상 :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컨설팅 비용지원

지원형태

개소당 800만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본담 40%) 🍌

※ 붉은 글씨는 2011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식품부 · 소비자시민모임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대한
양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